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



**2025
APEC
INCHEON**
세계 최초 경제자유구역
세계 최대 밴드오브브리기
지속 가능한 스마트 마천도시
인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1391호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尹, 메이저리거들과 ‘야구 꿈나무’ 격려…김하성에 “너무 잘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아린이정원 야구장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어린이 야구 교실에서 유소년 야구선수들과 함께 김하성의 소감 발언을 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인 16일 서울 용산아린이정원 야구장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어린이 야구 교실을 찾아 ‘야구 꿈나무’들을 격려하고 타격 시범도 선보였다. 아울러 일일 강사로 참여한 김

하성, 고우석, 매니 마차도,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등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 메이저리거들에게도 격려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팀 야구 접두에 천안함 정식 명칭 ‘PCC-772’가 새겨진 검정 티셔츠를 갖춰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채 야구장에 등장했다. 현장에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들과 야구부 미군 가족, 다문화가정 자녀, ‘최초 한국인 메이저리거’인 박찬호·박찬호재단 대표 등 300여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김하성을 만나자마자 “우리 김하성 선수 게임 할 때는 내가 보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다. 얼마나 타격을 잘하는지 아주”라고 감탄했고 김 선수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고운

석과 약수하며 “아이고, 참, 앞으로 고생하시고”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에 앉아 선수들의 시범 타격을 감상했다.

박 대표 권유로 자리에서 일어난 윤 대통

령은 연습 스윙을 한두차례 한 뒤 타격 시범을 선보였다.

곧바로 마이크를 잡은 윤 대통령은 어린이 선수들 사이에서 “주말을 늘려 주세요”, “한 달 동안 학교 안 가도 되게 해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웃어 보였다.

윤 대통령은 “세이들러 구단주의 외삼촌(페터 오밀리 전 LA다저스 구단주)이 저를 LA다저스 구단에 영입한 분”이라는 박 대표 설명에 “야구 명문가 오밀리 가문이 한국의 야구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다는 게, 저도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 이런 것을 누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책 읽고 공부만 해서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며 “여러분이 스포츠를 하고, 둘의 경기인 야구를 사랑하면 여

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 몸도 건강할 뿐 아니라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만나 반갑고 주말을 늘리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윤 대통령은 토마스 세이들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주, 에릭 그루프너 사장을 비롯한 구단 측 관계자들과 선수들에게도 “우리 동맹국인 미군 자녀들과 함께 이런 좋은 시간을 가져줘서 정말 고맙다”고 사의를 표했다.

김 선수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런 선수들을 보고 메이저리그의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격려했고, 마치도 선수

도 “여러분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계속 싸워 나가고 계속 꿈을 꾸면 여기 있는 선수들처럼 될 수 있다. 이 선수들도 한때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박 대표로부터 메이저리그 데뷔 30년 기념 글로브를 선물 받은 뒤, 지난해 5월 백악관 국빈 만찬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박 대표에게 전달했다. 박 대표는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을 받아 윤 대통령 옆자리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세이들러 구단주의 외삼촌(페터 오밀리 전 LA다저스 구단주)이 저를 LA다저스 구단에 영입한 분”이라는 박 대표 설명에 “야구 명문가 오밀리 가문이 한국의 야구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해준 점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세이들러 구단주는 “우리 가문이 한국 선수의 첫 메이저리그 진출에 기여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 신재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선상투표’, 19~23일 신고 접수

시·군·구청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각 청 누리집, ‘정부24’ 인터넷 신고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23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증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 중 승선한 사람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한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 신고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 까지 도착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에는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선박의 선장 등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강동준 기자

李, 황상무 ‘회칼테리’ 언급에 “정상적 인간이 하는 소리인가”

민주 “사과로 넘어갈 문제 아냐…당장 경질해야”



아니라 사퇴”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잘 들으라’라며 언론인 테러 사건을 상기 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려거든 회칼 맞을 각오를 하라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통합과 소통을 위해 일해야 할 시민사회수석이 노골적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니 시민사회수석이 아니라 ‘언론협박수석’이다”라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비뚤어진 언론관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협박을 벌어내는 황 수석을 당장 경질하라”며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도 황상무 수석 발언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주성 기자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지역과 고객에 큰 힘이 되는 상생금융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엔⁺ 고객엔^α BNLK 금융 그룹 경남은행

‘수사지연·부당출금’ 역공 직면한 공수처…수장 공백에 이중고

공수처 “법과 원칙 따라 수사”…법조계 “처장 공백에 어려울 수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한 가운데 수사 속도와 기밀 유출 등을 문제 삼는 여권의 전면 공세에 가뜩이나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연일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전날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SBS TV에 출연해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핵심”이라며 “(대사 임명 전까지)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수사나 조사에 무슨 차질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회피 의사가 없는 인물을 소환 시도도 없이 출국금지하고 2회에 걸쳐 연장한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법무부의 출국금지 혜택 논란이 총선 국정의 뇌관으로 급부상하자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해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캠브리로 향하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

다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역공의 범미를 준 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이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피의자는 대부분 아직 조사하지 못했고, 이 전 장관만 주호주 대사 임명 뒤인 지난 7일 급하게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계반년여 전인 지난해 9월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 속도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도 약 3개월간 소환하지 않은 것은 ‘득장 수사’라는 공격의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다.

조직원들의 수사 경험이 부족한 데다

수사 4부에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채상 병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이 집중됐고, 지난 1월 20일부터 김진욱 전 처장·여운국 전 차장이 차례로 퇴임하는 등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 출신 A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출국금지가 몇개월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왜 출국금지를 해놓고 부르지도 않느냐고 공격할 범미를 준 것은 맞다.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소환에 지체된 이유 등 수사 상황에 대해 일절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어진 여건하에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해왔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홀덤펍 운영업체가 발행하는 시드권(참가권)과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 행위를 면밀하게 들여다 볼 방침이다. 시드권은 홀덤펍에서는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해 불법성 논란이 있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 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기존에 도박장소설좌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여타 불법 행태를 카지노업 유사행위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불어오는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떠난 이 전 장관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언제쯤 심도 있는 소환 조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안 수사와 관련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질 지휘부는 여전히 공석이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9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2주 넘게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A 변호사는 “(공수처장 공백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단을 내리는 시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 출신인 로스쿨 B 교수는 현 상황을 두고 “정부와 수사기관이 모두 제 역할을 못 해 일어난 촌극이자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수처가 장관급 인사를 출국금지하고 3개월간 조사하지 않은 것은 고질적인 수사력 부족을 보여준다”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걸려내지 못한 법무부와 대통령실도 문제”라고 말했다.

/ 김성윤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타병원 등록한 사직 전공의에 정부 치벌경고

“공보의 법적보호”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있는데,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제출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 집단 진료 거부는 (민법에서 계약 해지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

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의료기관 20곳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보의 등이)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 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 황윤성 기자

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

‘시드권’ 불법성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5호’로 공표

한 바 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벌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

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홀덤펍 운영업체가 발행하는 시드권(참가권)과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 행위를 면밀하게 들여다 볼 방침이다. 시드권은 홀덤펍에서는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해 불법성 논란이 있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 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기존에 도박장소설좌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여타 불법 행태를 카지노업 유사행위

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형법상 도박장개설죄가 규정하는 처벌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위해 대국민 홍보, 포상금 등을 통한 제보 강화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 최재형 기자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ncheon petrochem

작품명 세상을 지키는 선한 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은
에너지 공급과 자원의 재순환을 통해
세상을 선한 에너지*로 채웁니다

*선한 에너지는 탄소를 줄여 나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혜택을 전하고자 하는 SK인천석유화학의 지향점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의 그린피처

정부 “후쿠시마 지진 후 오염수 방류 재개…현지 점검단 파견”

“외부 방사능 유출 없어…일본 지진 관련 상황 주시”

15일 일본 동부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중단됐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재개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일본 도쿄전력은 당일 새벽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설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15시 49분 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점검관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오염수 방출 관련 설비에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쿄전력이 진도 5양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해양 방출을 정지하는 이유는 예방적 차원에서 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재개 이후 관련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후쿠



시마 원전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성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0시 14분께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 5양의 지진이 기록됐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 도쿄전력은 0시 33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본의 지진은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할 ‘상황’에 해당하며, 일본 측은 방류를 중단하고 곧 바로 우리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에 따르면 아직 후쿠시마 원전의 모니터링 장비에서 유의미한 변동이 감지되지 않았고,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며 “우리 정부도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도쿄전력 축별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우리 정부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하여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진 후 오염수 방류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 검토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번 지진으로부터 추가적인 영향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개될 걸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 권도윤 기자

외교부, 아이티 체류 한국인 70여명 보호대책 점검 회의

외교부가 15일 간단 폭동으로 무법천지가 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 담당 재외공관 등을 연결해 현지에 체류하는 한국인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아이티를

회의를 주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차관은 한국인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또 인접국 및 우방국과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아이티에는 한국인 70여 명이 체류 중

이며, 정부는 현지 상황을 살피며 유사시 이들의 철수 계획까지 포함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 최빈국으로 꼽히는 아이티에서는 2021년 7월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 홍영준 기자



LGU+

DATA IS FREE

매일 2시간
데이터 무제한

[프로모션 주제사진입니다]
• 수도권 일부 지역 일부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부스터 1시간 금액 일 2회 제공해요.
• 1GB~24GB 모델별로 1회에는 고객(삼성으로 21~31일 기간 및 거동한 고객에게 12개월간 제공해요.
• 다음 달 결제일까지 최대 6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픈 프로모션 및 기본 제공 데이터 모두 소진 후 사용 가능해요.
• 원래 결제 후 태블릿 부스터가 비활성화됩니다.

내가 만드는 디지털 통신 플랫폼
nget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무상등록금제’ 정부에 건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제 시행 방안과 재정 중장기 비전 수립, 석좌교수 운영 제도 개선, 국·공립대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고 국민의 교육 균등 실현을 위해 무상등록금이 필요하다고 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 등록금 도입을 위해 국립대학법(가칭)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장학금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또 65세 이상의 석학 교수도 초빙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국 40개 국·공립대의 총장이 참여해 국·공립대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설치된 협의기구다.

/ 노승만 기자

2024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14일 광주 북구 응봉동 전남대학교 스토리움에서 열렸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정성택 전남대 총장)가 주최하고 전남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34개 국·공립대학 총장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기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국·공립대학의 존재 가치는 교육과 연구를

통한 다양한 미래인재 양성과 지속적인 사회 가치를 창출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다”며 “어느 때보다 교육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공동 운명체인 국·공립대학이 상생과 협력을 통해 품격 있는 고등교육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우리 대학은 급격한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 등의 변화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난제에 직면해 혁법을 찾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장의

경찰, 메디스태프 추가 압수수색…공보의 업무거부 종용 수사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올라온 사이트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본사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가 지난달 22일 같은 곳을 압수수색한 지 20여일 만이다. 경찰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거부를 종용하는 글을 메디스태프에 잇달아 올린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보의 파견 현황이 담긴 보건복지부 내부 문건을 온라인 커

뮤니티에 올린 게시자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상비밀유출 혐의로 입건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파견 공보의들의 성명은 가린 채 근무기관과 파견병원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이 게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를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IP) 등을 주목해 작성자들을 특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을 메디스태프에 올린 현직 의사의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메디스태프 관리자와 직원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증거은닉)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 최규성 기자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여원 국가배상 판결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총 24명에게 국가가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법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1억2천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해자 7명에겐 900만~2억여원을, 나머지 원고인 이들의 가족에겐 200만~5천300만여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았다. 대다수는 이후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

/ 신자호 기자

與 첫 선대위원장 회의…‘위기론’ 타개할 반전 카드 나올까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이 휴일인 17일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를 열고 수도권 위기론 등으로 주춤한 총선 판세에 돌파구를 모색한다.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는 공동 선대위원장장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 안

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총괄본부장인 장동혁 사무총장 등도 함께한다.

이들은 고물가 문제와 일부 인사들의 설화 논란, 야권의 이종섭 주호주대사 부임 정치 쟁점화 등 최근 총선 국면에서 여권에 암초로 부상한 문제들을 놓고 각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안철수·나경원·원희룡 등과 묵수 찾기

‘민생 올인’, ‘지역밀착’ 등 새 담론 모색할듯

특히 최근 구설에 오른 정우택·도태우·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잇달아 전격 취소하고, 당정도 고물가 대책을 하나둘 내놓는 것으로 미뤄볼 때 이날 회의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선 한 비대위원장 취임 후 여권에 조금씩 유리한 판세가 형성되는 듯하다 최근 일부 정치적 악재로 전국 주요 격전지에서 ‘적신호’가 잇달아 켜지는 위기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의견 등이 교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전략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안 의원은 대선 주자 출신이고, 나 전 의원과 원 전 장관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대형 전국 선거를 여러 차례 직접 치르거나 지휘에 참여해 본 ‘백전노장’인

만큼 한 위원장에게 다양한 정치적 묵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 올인’, ‘지역 밀착’ 등 새로운 선거 담론에 대한 아이디어가 분출할 수 있다. 서울 동작을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야권의 실기에 따른 반사 이익만 기대해선 안 된다며 “새로운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다.

인천 계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 원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물가가 너무 올라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어한다”며 “더 겹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내에서는 이 대사가 당장 귀국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바로 출국하는 방안 등 도 거론된다.

/ 송유영 기자



대화하는 조국·황운하

조국혁신당 비례후보에

조국·황운하·박은정 등 20명 확정

조국혁신당은 15일 조국 대표와 더 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 등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20명을 발표했다.

여성 10명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고자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

다는 의혹을 받다가 해임된 박은정 전 법무부 강찰담당관과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강경숙 전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장,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양소영 작가, 이숙윤 고려대 교수,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후보로 확정됐다.

남성 10명에는 조 대표와 황 의원 외

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의정부여종 교사,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신장식 당 수석대변인,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들 중 결격 사유가 생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전 공천이 취소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수진

변호사, 이규원 검사 등 남녀 3명씩 6명을 예비후보로 선발했다.

후보자 20명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견발표를 한다.

조국혁신당은 17일 오전 9시부터 18 일 오후 6시까지 비례후보 순번 지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하고, 투표 마감 세 시간 뒤인 오후 9시에 최종 순번을 발 표한다.

/ 손현수 기자



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도 안된 전체주의자의 표본 그 자체에 가깝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 강효성 기자

민주 선대위 3톱 ‘심판론·전략멘토·쓴소리’ 역할 분담

이재명, 당 간판으로 전국 돌며 ‘정권 심판’ 바람몰이

이해찬, 이재명 리더십 보강…‘레드팀’ 김부겸, 중도 공략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선거대책 위원회 ‘3톱’을 맡으면서 이들의 역할 분담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권 심판’ 공격수로 나서고, 이 전 대표는 총선 전략을 조언하는 멘토, 김 전 총리는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간판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 대표는 유세를 총괄한다.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띠울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는 것이다. 최근 공천 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이 대표의 발길은 총선 격전지를 향하고 있다.

당의 간판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 대표는 유세를 총괄한다.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띠울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는 것이다. 최근 공천 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이 대표의 발길은 총선 격전지를 향하고 있다.

오랜 당 주류인 이 전 대표는 당에 뿌리가 깊지 않은 이 대표의 리더십 보완재 역할도 한다. 이 전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이 낙마한 서울 강북을의 새 후보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공천 과정에서 크게 내용을 겪은 당의 완종재 역할을 맡고 있다.

뚜렷한 계파적 세력이 없는 김 전 총리는 당내 통합과 함께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함께 하면서 중도층 표심 잡기에도 노력하는 모습이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박용진 의원의 공천 승계 불발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 지도부가 중도층 유권자들까지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강북을을 전략경선 지역으로 정하면서 박용진 의원의 공천 승계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비판론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자신의 발언에 일종의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건
강
한
정
치
후
원
금
을
비
우
한
토
양
에
서
이
루
듯
되
는
것
을
하
며
정
치
문
화
를
이
줍
니다.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세법률 126)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종
다액 이하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금지 추진’ 한동훈에 “느그들 졸았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스페 쌍기’ 의혹을 두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한 위원장 딸님의 소환 조사, 압수수색, 딸님이 다닌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했으니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 딸의 의혹과 함께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소위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 도입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 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통과 가능성에 제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 것”이라며 “제 생각에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높아지니 이에 위축된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 것 같지 않으니 부산 사투리로 (한 위원장에게) 한마디 하겠다”며 “느그들 졸았제 (겁먹다)라는 뜻의 속어인 ‘쫄다’의 부산 사투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수사를 받지 않아서 기소도 안 되고, 유죄 판결도 받을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 위원장은 불처벌 특권 집합체”라고 비난했다.

/ 김채윤 기자

온 경찰은 지난 1월 한 위원장 가족을 불 송치했다.

조 대표는 라디오에서 임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딸 조민 씨를 언급하며 “일기장, 체크카드,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압수

수색한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한 위원장 딸에게도) 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자신을 거냥해

비례대표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 다음

비례대표 순번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장예찬(부산 수영), 조수연 (대전 서구갑) 후보의 처리가 뇌관이다.

장 후보는 ‘난교 융호’ 발언에 이어 ‘서

울시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

辱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등의 발

언이 도마 위에 올랐고, 조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일제를 응호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들에게는 당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

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도 “발언의 심각성, 시기 등을 두루 고려

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

류되는 장 후보 층분에 더욱 주목하는 모

습이다.

지역구 일선에서 뛰는 후보들은 지도

부에 단호한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김재섭 후보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수도

권 선거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 한성주 기자

그는 “나는 강간했어도 애를 낳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신 빠진 여자가 어디 있느냐”며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를 얘기한 거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는 국가가, 사회가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강간했어도 애를 낳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신 빠진 여자가 어디 있느냐”며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를 얘기한 거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는 국가가, 사회가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CBS 라디오가 문제가 된 자신의 발언 중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부분을 빼고 자막을 내보냈다며 “경위를 밝혀야 한다.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권현준 기자



언쟁 벌이는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진중권 광운대 교수

김행·진중권, 라디오방송 중 거친 언쟁 잠시 마이크 꺼지기도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진 중권 광운대 교수는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중 ‘고소’까지 언급하며 거친 언쟁을 벌였다.

두 사람은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최근 정치권 현안과 가짜 뉴스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김 전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두고 말싸움을 벌였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유튜브 방송에서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무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험버러런스(tolerance·관용)”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라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는 자신의 이 과거 발언을 두고 라디오에서 “내가 진 선생님에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며 “내가 한 번도 ‘강간해도 애를 낳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진 선생님이 (과거에) 나를 그걸로 엄청 공격을 했다”고 따졌다.

그는 “나는 강간했어도 애를 낳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신 빠진 여자가 어디 있느냐”며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를 얘기한 거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는 국가가, 사회가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강간했어도 애를 낳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신 빠진 여자가 어디 있느냐”며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를 얘기한 거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는 국가가, 사회가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낳은 여인이 정말로 자기가 애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것처럼 들린다. 그런 가능성을 가져다 상정하면 안 된다”며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본인 표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말싸움을 하던 중 김 전 후보자는 “총선 끝나고 고소할 리스트에 진 선생님도 포함돼있다”고 했고, 진 교수는 “하세요”라고 받아쳤다.

두 사람이 거친 언쟁을 이어가자 “그만 하라”고 말리던 진행자는 “마이크를 꺼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잠시 마이크가 꺼지기도 했다.

이후 김 전 후보자는 “정말 죄송하다. 내가 상처가 많았다”, 진 교수는 “죄송하다”고 각각 청취자들에게 사과했다. 진행자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며 생방송을 마무리했다.

방송 다음 날인 16일 김 전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사평론가 진중권 선생의 세 치 혜에 ‘인격 살해’를 당했다”며 “나는 사과할 줄 알았다. 진 선생은 어제 또 내 발언을 왜곡해 녹설을 피부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CBS 라디오가 문제가 된 자신의 발언 중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부분을 빼고 자막을 내보냈다며 “경위를 밝혀야 한다.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권현준 기자

與도태우·野정봉주 공천 취소에도 설화 리스크는 현재진행형

하루에만 여야 합쳐 후보 3명 ‘아웃’…선거 악영향 우려해 결정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총선을 채 한 달도 앞두지 않은 시점에 여야가 ‘막말’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많게는 두 자릿수 의석이 오갈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문제 가 된 후보들을 쳐내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4·10 총선을 26일 앞둔 15일 정치권에 서는 여야 후보 3인의 공천 취소가 뜨거운 이슈가 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5선 전진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취소한 데 이어 5·18 민주화운동 펌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

보수·진보 지지층이 서로 결집한 상황에서 실언이나 설화 등으로 중도층을 잃는다면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탓이다.

역대 총선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1일 3 후보 퇴출’ 속에 여야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잠재적인 리스크의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들에게는 당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발언의 심각성, 시기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장 후보 층분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이다.

지역구 일선에서 뛰는 후보들은 지도부에 단호한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김재섭 후보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수도

권 선거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 한성주 기자

건설이 만든 금융
www.cgbest.co.kr

건설 산업의
내일을 연주합니다

건설을 든든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우리가 하는 일은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공간의 완성을 보증하는 일입니다

건설에 가장 어울리는 화음, 건설공제조합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내일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무기 쓸 때 국제법 준수”…미국에 각서 보냈다

바이든, 가자 민간인 참사 둘러싼 비판 속 이례적 압박 가중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우방인 미국 간의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 사용 시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협약서를 미국에 보냈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는스는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서 제공받은 무기를 국제법에 따라 사용하고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가지지구로 반입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한에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지난 10일 협약서를 보내도록 승인했으나 갈란트 장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나흘 뒤인 이날 서명했다. 해당 협약서는 책 뒤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에게 전달됐다고 이스라엘 당국자는 전했다.

이 협약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국가안보 각서에 따라 이스라엘에 요구한 것이다.

국가안보 각서는 미국이 외국에 무기를 지원하기 전에 해당 국가로부터 국제인도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신

빙성 있고 믿을만한 서면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각서는 또한 분쟁지역에서 미국 무기 사용하는 국가가 “미국의 인도적 지원과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을 자의적으로 거부, 제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저연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가자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에 각종 무기를 판매하는 등 군사 지원을 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각서에 따라 이스라엘

3월 25일까지 협약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은 무기 이전을 중단하게 된다.

미국의 이러한 새 정책은 이스라엘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스라엘의 가지지구 군사작전에 우려를 표명한 뒤 백악관을 압박해 나온 것이라고 악시오는스는 전했다.

이스라엘과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협약서를 보내기에 앞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안보와 자기 방어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그런 서한을 보내려면 장기간 협의와 협상 과정이 필요해 국가안보 각서에 정해진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측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최우방인 미국은 가지지구 전쟁 개전 직후부터 이스라엘을 지지해왔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외교적 고립도 감수해왔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후 구상을 둘러싸고 양측은 균열을 드러내며 엇박자를 이었고, 네타냐후 총리의 라파 공격 강행 방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언급하는 등 파열음이 커졌다.

여기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친이스라엘 일변도 정책에 따른 민주당 지지층 표심 이반이 가속화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 제재를 추가하고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네타냐후 총리 교체를 촉구하는 등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 조규한 기자



러시아 군인들

러 “우크라이나 2년간 한국 용병 5명 사망”

외교부 “확인중”

러시아 국방부는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2년간 ‘한국인 용병’ 15명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사망했다고 1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이 작전을 개시한 2022년 2월 24일 아래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외국 용병을 추적하고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한국인의 신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2022년 6월에 한국인 13명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고 이중 사망한 4명, 출국한 8명을 제외하고 1명이 우크라이나에 남았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러족 발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사실 관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특별군사작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88개국 총 1만3천387명의 외국 용병이 참전했으며 이 가운데 5천 96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발표치보다 종인원수는 6천431명, 사망

자는 4천6명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폴란드 출신이 2천960명(1천497명 사망)으로 가장 많다고 자체 집계했다.

또 미국 1천113명(491명 사망), 조지아 1천42명(561명 사망), 캐나다 1천5명(422명 사망), 영국 822명(360명 사망), 루마니아 784명(349명 사망), 독일 235명(88명 사망) 등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자국 출신 용병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356명이 도착해 147명이 사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외에도 중국에서 7명, 일본에서 15명이 참전해 각각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장교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2022년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황순길 기자

중국·러시아, 백두산호랑이 보호·연구 공동연구소 설립

중국과 러시아가 백두산 호랑이(중국 명 둥베이후·東北虎)를 보호하고 연구하기 위한 공동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 연구소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성 하얼빈(哈爾濱) 소재 동북임업대학에 설치됐으며 양국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베리아 호랑이로 불리는 백두산 호

랑이는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 지역, 백두산을 포함한 북한지역이 주요 서식지로, 세계 10대 멸종위기동물로 꼽힌다. 특히 중국은 2021년 10월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일대 1만4천100㎢를 아생 백두산 호랑이·표범 국가공원으로 지정해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지린성 훈춘 등에서 백두산 호랑이가 출몰한 영상 등이 중국 인

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소 설립은 중국과 러시아 간 백두산 호랑이와 표범에 대한 공동연구와 보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아생 호랑이와 표범 보호는 물론 동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질병 모니터링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윤호 기자



日후쿠시마 해역서 규모 5.8 지진…오염수 첫 방류 중단 후 재개

“후쿠시마 제1 원전 등 인근 원전 이상 없어”…후쿠시마서 2명 다쳐

일본 혼슈 동부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15일 오전 0시 14분께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50km이며, 쓰나미(지진해일)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껴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지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 발생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도쿄전력은 절차에 따라 오전 0시 33분께 후쿠시마 제1원전 백력발전소에서 진행 중인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수동으로 중단했다가 약 15시간 만인 오후 3시 50분께 재개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된 것은 처음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28일 4차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고, 이 달 17일 종료할 예정이었다.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서 2명이 다쳤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비롯한 주변 원전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편,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 규모를 5.6으로 측정했다. 진앙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서남서쪽으로 23.8km 해상, 진원 깊이는 53.1km라고 발표했다.

/ 김유정 기자

NH농협금융

금융의 모든 순간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NH가 손을 보탰습니다

금융의 속길이 달아야 할 곳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NH농협금융은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농민은 물론,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을 돋고 있습니다
언제나 농민과 서민의 든든한 금융동반자로써 손내밀어 삶의 가치를 실현해드립니다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투명 투표함’에 온라인 표도 공정성 논란…“답정너 푸틴 대선”

15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투표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왜 푸틴은 항상 이기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예전부터 대중의 목소리를 이용해 선거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항상 승리해왔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엘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다. 2000·2004·2012·2018년 대선에서 승리했고, 2008~2012년에는 총리로 물러나 있었지만 실권을 유지했다.

이를 위해 푸틴 대통령은 언론, 법원, 의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민주적 제도를 꾸준히 파괴해왔다고 WP는 꼬집었다.

이번 대선에서 5선에 성공하면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6년 더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 모두 30년간 크렘린궁 자리에 지킴으로써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29년 집권)의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크렘린궁이 통제하는 미디어는 푸틴만이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러시아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선전을 쏟아내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만이 할 수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항해 죽기 살기의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에 걸쳐 시행되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함 조작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내 27개 지역과 우크라이나 내 15개 지역에서는 절차가 불투명한 온라인 투표가 시행되는데, 이는 투표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온라인 투표는 이번에 최초로 도입됐는데, 집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특별 사이트에 접속해 디지털 코드로 신원을 확인하고 원격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 신재일 기자

與조수연, '일제옹호' 과거 글 논란에 광복회장 찾아 큰절 사죄

광복회장 "7년 전 생각 그대로인가?"…조수연 "절대 그렇지 않아"

국민의힘에서 대전 서구갑 공천을 받은 조수연 후보가 과거 '일제 옹호성'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15일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직접 사과했다.

조 후보는 이날 오후 배우자와 함께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을 방문, 이 회장에게 과거 발언을 사과하며 큰절했다.

조 후보는 "사려 깊지 못한 글로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순국선열의 위대한 헌신에 깊이 동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구한말 삼정 문판에 따른 어려움을 강조하다 보니 글이 엉나갔다"며 "일제가 힘만 가지 고 당시 힘없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사실상 침략해 합병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우리의 독립은 선열들의 피



나는 투쟁으로 생취한 것인데, 조 후보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후보로서 지지할 수 없다"며 "실수라고 사과하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7년 전 생각이 지금도 그대로인가"라고 했다.

조 후보는 "하늘에 맹세하건대 절대 그

는 것보다는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고 썼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계시물에서 "조선 망국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일본을 하지만,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일본은 고양이, 조선은 생선이었다"며 "생선이 된 스스로를 반성해야지 그것을 먹은 고양이를 탓한다고 위안이 되겠나"라고 적었다.

이외에도 "이완용 등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조선 망국의 제1 책임은 누가 뭐라도 군주인 고종",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 등 표현도 있었다.

이 회장은 이날 면담을 마치고 조 후보에게 광복회에서 낸 '대한민국의 정체성' 책자를 선물했다. / 송진영 기자



사과문 발표하는 김상득 당시 KGB 대표

'개인정보 유출' KCB, 국민카드에 623억 배상판결 확정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에 총 62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KB국민카드는 KCB에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맡겼는데, 이 업무를 담당했던 KCB 직원 박모씨가 2013년 고객 5천378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한 업체에 팔아넘겼다.

박모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KB국민카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KB국민카드는 KCB가 직원 박모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KCB는 재판에서 "FDS 개발에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KCB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카드사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KCB가 고객 정보가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일짜리 신입 직원 교육만 받은 계약직 박씨를 현장 책임자로 지정한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개인정보 유출로 KB국민카드에 약 506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중 60%인 303억원을 KCB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업무 대행 수수료 증가분, 법률비용, 피해 고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 등을 추가로 인정해 손해액을 891억원으로 늘렸고 이 중 70%인 623억9천998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 박준성 기자

서울교통공사 측 "전주환 살인 방지 어려웠다"…배상책임 부인

서울교통공사 측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공사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사 측은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욕설이나 폭행 등에 비해 살인 고의 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

기며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이와 관련해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 전주환이나 그의 소속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재판부는 오는 5월3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 장수경 기자

기술가치투자 이제 퍼트려(PTR)! SK증권 PTR랩



PTR : 주가기술비율[Price Technology Ratio]로 상장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주가와 비교하는 지표임. PER이나 PBR처럼 기술가치대비 주기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투자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SK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법 계약은 예금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법 계약은 자산구조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기업이 사전에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성품의 투자위험등급을 정밀히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이 법 계약의 손취수료는 없으며, 운용보수 연 1.5%(분기별 0.375% 후취), 성과보수는 고객과 별도 협의로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호하던 차량을 상대로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인천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호 차량을 향해 반복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무리하게 끌어들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운전 중에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하는 게 아

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차량 일부를 개조한 화물차를 운전했으며, 차체에는 정부와 민주당 등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변보호팀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 확인을 거쳐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습격당한 것을 계기로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해 전담 신변보호팀을 가동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행적을 조사한 결과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며 "양측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정수 기자

선관위, '경선 부정 의혹' 이혜훈 캠프 관계자 6명 경찰 고발



공천 관련 기자회견 하는 하태경 의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서울 중·성동을 국민의힘 후보 선출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전 의원 측 캠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에 이 전 의원 측 캠프 관계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이날 하태경 의원 측에 통지했다.

선관위는 이 전 의원 측 캠프 관계자들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

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08조 11항 1호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2일 발표된 경선 결과에서 하 의원을 이겨 국민의힘 중·성동을 총선 후보로 확정됐지만, 이후 이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폐신자 단체대화방에서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글 등이 올라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하 의원은 13일 선관위에 이 내용을 신고·제보했고, 선관위는 이 전 의원 캠프 관계자 핸드폰 포렌식 등 조사 절차를 거쳐 하루 만에 경찰 고발을 결정해 통지했다.

하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하 의원의 이의 제기와 관련해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유정 기자

유한양행 28년 만에 회장 생기나…직제 부활 안건 주총서 통과

조옥제 대표 “R&D 인재 필요”…일부 직원 반발 트럭 시위



유한양행 주주총회 입장하는 이정희 이사회 의장

유한양행에 회장·부회장 직제가 부활했다. 유한양행은 15일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열린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약 95%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회사 창립 시부터 유한양행 정관에 회장직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2009년 주주총회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부활했다.

조옥제 유한양행 대표는 의안 통과 전에 “제약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혁신 신약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려려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며 “신설에 다른 사심이나 목적이 있지 않음을 명예를 걸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경된 정관에는 회장·부회장 직제 규정에 더해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

으로 표기된 것은 표준 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한양행은 앞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며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고, 외부 인재 영입 시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에서 회장에 올랐던 사람은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와 연만희 고문 두 명이고, 연 고문이 회장에서 물러난 1996년 이후에는 회장직에 오른 이는 없었다. 새로운 회장이 언제 생길지에 대해 조 대표는 “정해진 바 없으며 모른다”고 답했다.

회장 직제 부활을 앞두고 일부 직원은 특정인이 회장직에 오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날 본사 앞에서는 정관 변경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벌어

졌다.

유일한 박사의 손녀이자 하나뿐인 직계 후손인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도 직제 변경에 우려를 표하며 거주 중인 미국에서 귀국해 이날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할아버지의 정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유한양행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저 회사를 살펴보고 회사와 할아버지의 정신을 지지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선 조옥제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며 연임에 성공했

다. 김열홍 R&D 총괄 사장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며 이정희 이사회 의장은 기타비상무 이사로 재선임됐다.

직제가 마련되면 회장직에 오를 인물로 거론되기도 했던 이정희 의장은 주총장을 빠져나가며 “저는 (회장) 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1969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선택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 제도 등을 두고 있다.

/ 박현웅 기자



배민, ‘대필서명 배민1 가입’ 논란 사과

“재발방지 노력…책임 있는 조치 취하겠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대필서명을 통해 접수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에 가입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경기와 제주 지역 협력업체 부당영업 행위로 일부 식당 사업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 상품에 가입된 일 이 드러났다”며 “당사는 해당 협력업체들의 영업 관리 위탁 회사로서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사설조사와 법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편을 겪은 사업자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다수 협력업체와 소속 영업 매니저는 부당 영업행위를 통해 업주들을 배민1에 가입시켰다.

한 협력업체의 경우 음식점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필서명을 했고, 접수에

게 새로 서류를 받지 않고 우아한형제들에 보관된 기존 서류를 부당하게 활용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런 행위는 부당한 영업 방식으로 협력업체와 계약상 금지돼 있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이후 2월 중순부터 문제가 된 해당 협력사를 비롯한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일으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상 폐널티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당사의 영업 독촉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일부의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준법 영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한 뒤 조치하고 이를 추가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 강성호 기자

농식품 차관 “유통업계가 물가안정에 협조해달라”

정부가 물가안정 기조에 협조해달라고 유통업계에 재차 요청했다.

한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5일 이마트 [139480] 용산점을 찾아 농축산물·가공식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런 노력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유통업계 협조가 절실히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산물 납품단가와 할인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마트는 이런 물가안정 정책에 동참해 특별판매 행

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마트는 ‘가격파격 선언’ 슬로건을 걸고 이달 생필품 40대 품목에 대해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 중이며 이중 계란, 시금치, 컵밥을 ‘식품 3대 핵심상품’으로 선정해 할인 판매하고 있다.

한 차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껏 이마트에서 추진해 온 자체 할인행사가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고,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 박소희 기자

‘번호이동 지원’ 카드에 다시 불붙는 이통사 보조금 경쟁

이통 3사, 공시지원금 상향 등으로 대응…고객차별·알뜰폰 고사 우려도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50만원까지 ‘합법적으로’ 줄 수 있게 된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모습

정부가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잠잠하던 통신 시장에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주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등 대응에 나서면서 시장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 노립수가 적중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의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갤럭시 S24 시리즈와 Z플립5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5만5천~60만 원으로 최대 10만 원 상향 조정했다.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주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6만3천250~69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로 예고된 전환지원금 실제 지급을 앞두고 더 치열해진 시장 경쟁에서 미리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동통신사들은 13일 관리 고시 제정 직후부터 제조사들과 정책을 협의하고, 지원금을 반영하기 위한 전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남은 만큼 공시지원금 형태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선반영’한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전환지원금 시행에 앞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비용 경감을 위해 일부 단말 모델에 대해 공시지원금 상향을 우선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통신사들은 수기로라도 전환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스마트폰 위주로 공시지원금 상향이 ‘일제히’ 이뤄졌다는 점에서 ‘갤럭시 AI’ 적용 모델 확대를 앞둔 삼성전자의 지원사격이 있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4 시리즈와 Z플립5·풀드5, S23 시리즈, S23 팬에디션(FE)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프로모션을 열고 있다.

보조금 경쟁으로 활발해진 통신 시장에 올라타면서 갤럭시 AI 확산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 한편에서는 전환지원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지출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한정된 상황에서,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면 신규·기기 변경 고객을 차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족’만 지원금을 독식하게 되고, 통신사를 유지하려는 장기 고객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논리다.

설령 마케팅 비용 자체가 증가하더라도 그 대신 통신 인프라 구축 등 품질 경쟁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불법 보조금(리베이트)을 받는 일부 ‘성지점’에 헤택이 몰리는 경우, 유통망 안에서 빙의빈 부의부를 가속화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알뜰폰 사업자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하고, 시장이 고사할 수도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과 함께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추구하는 가입유형 간 차별금지를 대폭 확대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며 “우려와 문제 지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와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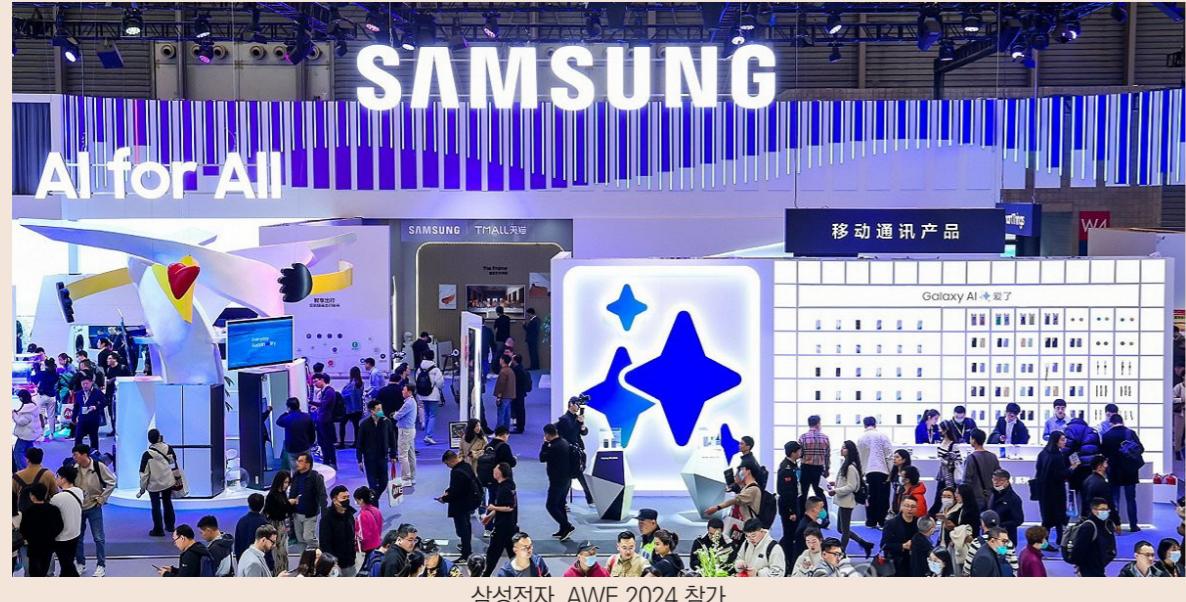
/ 광도준 기자

세상 모든 기술이 빛나는 무대
4만 명의 하이지니어로부터

세상에 빛이 되는 첨단 기술,
SK하이닉스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삼성·LG전자, 中 최대 가전 전시회 참가…中 시장 공략



삼성전자, AWE 2024 참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17일까지 중국 상하이 신국제박람센터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가전 전시회 'AWE 2024'에 나란히 참가해 중국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가전과 TV 신제품을 선보였다.

AWE는 글로벌 3대 가전·전자산업 박람회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약 1천640㎡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해 현지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비스포크 가전과 TV 라인업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선보인 비스포크 냉장고는 중국 평균 주방 가구장 크기에 맞춰 600mm 깊이로 설계했고, 좌우 4mm, 상단 9mm 공간만 남겨두고 설치할 수 있는 '제로캡 키친핏' 제품이다.

내부는 중국 소비자의 식습관을 반영해 견과류와 찾았던 곡물 등을 낮은 습도로 보관하는 '건습 박스', 채소와 과일을 높은 습도로 신선하게 보관하는 '보습 박스'를 갖췄다.

외관 크기는 유지하면서 내부 드럼 크기를 기존 제품보다 16% 더 키워 12kg의 세탁 용량을 구현한 비스

포크 세탁기 신제품도 전시했다.

AI 맞춤 코스가 탑재돼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 건조도를 감지해 세탁과 건조 시간을 맞춤 조절할 수 있다. 제품 전면에 7형 컬러 LCD 스크린도 탑재됐다.

삼성전자, 가구장 꼭 맞는 비스포크 냉장고 등 맞춤형 가전·TV 선보여

LG전자는 워시타워, 77·83형 올레드 TV 등 프리미엄 가전 출시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마이크로 LED와 네오(Neo) QLED 8K 등 2024년형 TV를 선보이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리더십을 강조했다.

마이크로 LED는 114형·101형·89형·76형 등 다양한 크기의 제품이 공개됐다.

3세대 AI 8K 프로세서가 탑재된 2024년형 네오 QLED 8K는 저해상도 영상을 8K급으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8K AI 업스케일링 프로', AI가 사물의 움직임을 더욱 선명하게 보정하는 'AI 모션 인핸서 프로' 등

의 기능을 갖췄다.

삼성전자는 98형 TV 3대를 활용해 집 안의 프라이빗 영화관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AI 알고리즘이 적용된 2024년형 삼성 사운드바와 연동해 흰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워시타워와 인스타 뷰 냉장고, 77·83형 올레드 TV 등 올해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프리미엄 제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했다. '영 제너레이션(Young Generation) 고객을 겨냥한 제품도 대거 선보였다.

LG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일리러에 의류 구김 제거에 탁월한 핸디 스티커를 추가 내장한 '올 뉴 스타일러'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포터블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고', 울트라기어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와 LG 그램 프로(PRO) 노트북, 초소형 포터블 고화질 프로젝터 LG 씨네빔 큐브 등을 전시했다. 이들 제품은 중국 최대 온라인 가전 유통사인 징동(JD.com)을 통해 출시된다.

씽큐(ThinQ)를 중심으로 가전을 넘어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고객들의 니즈(요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을 구성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인 개인화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빌트인 오븐과 퓨리케어 에어로파니처,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하이드로토워 등을 선보이고, 다양한 색을 드러내는 무드업 제품을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를 통해 실제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 신형준 기자



당정,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

1천500억원 내주 투입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대상 21개로 확대…지원단가 kg당 4천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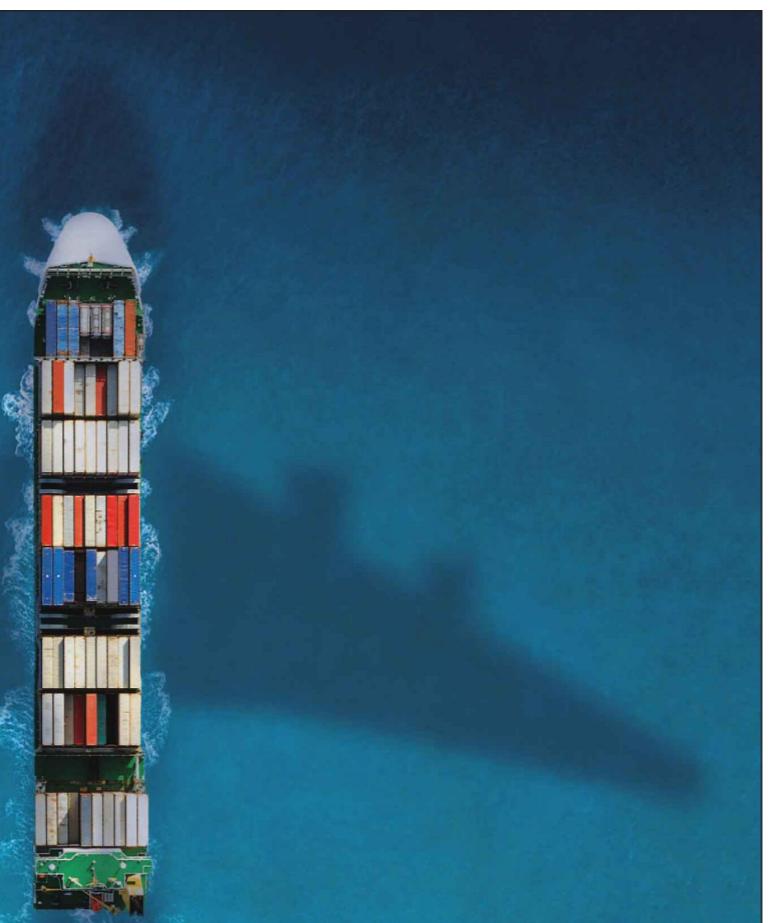
정부와 국민의힘은 15일 최근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또 한우, 한돈,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을 30~50% 할인하는 행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연중 할인 행사의 경우 한우는 기존 15회에서 25회로, 한돈은 기존 6회에서 10회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물가가 너무 높아, 특히 과일이나 축산물 물가가 너무 높아서 그 부분을 정부·여당이 어떻게든 해소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여러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협의가 도출되는 문제를 그때그때 말씀드릴 생각이다. 물가를 잡는데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협의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렇기에 이번 조치를 월요일부터 즉각 실시키로 정부와 협의했다"며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속 마련되는 대로 즉각 즉각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정수 기자



대한민국 비상(飛上)을 위한 또 하나의 날개

세계 2위의 환적항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종점
24시간 운행하는 여객·물류 국제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카카오, 정기 결제형 기부 서비스 '매달 기부' 시범 개시

기부 서비스다.

기부 분야는 ▲ 쓰레기 줄이기(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실천 ▲ 도시 속 나무 심기 ▲ 유기 동물 구조와 보호 ▲ 유기 동물 입양문화 정착 ▲ 자립 준비 청년 지원 ▲ 위기 아동 지원 ▲ 청년 고립 극복 지원 ▲ 청각·언어 장애 청년 문화예술 지원 ▲ 해외 어린이 긴급 구호 등 총 9개 항목이다.

각각의 항목에 조성되는 기부금은 생명의 숲, 동물권행동 카라, 월드비전 등의 단체를 통해 기부된다.

아울러 기부 항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매달 골고루 추천 기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추천 기부를 선택하면 9개 항목 중 카카오같이가치가 추천하는 1개의 항목에 기부금이 전달된다. 각 항목에 대한 기부 금액은 최소 3천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9개의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는 매달기부 시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용자들의 참여 첫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큼을 기부한다. 이용자가 선택한 동일한 항목에 기부되며 이 방식의 카카오 기부금 한도는 총 1억원이다. 이밖에 매달기부에 동참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카카오는 소개했다.

/ 정효진 기자

“해외사업이 끌고 신제품이 밀어”

농심 영업이익 사상 최대

농심은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업이익의 절반은 신라면을 중심으로 한 해외사업을 통해 거뒀다.

농심의 작년 매출은 연결기준 전년 대비 9.0% 증가한 3조4천106억원, 영업이익은 89.1% 증가한 2천121억원이다. 영업이익률은 6.2%다.

농심은 해외법인 영업이익이 125% 늘어나 전체 이익개선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미국법인은 제2공장 가동 효과로 현지 유통업체 매출이 확대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4%, 131.4% 늘었다. 중국법인

인의 경우 내수경기 침체로 매출은 4.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11% 증가했다.

농심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에 맛 있게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라면의 매력이 부각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22년 5월부터 미국 제2공장이 본격 가동해 해외법인 실적이 크게 성장했고, 국내 수출도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약 37%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거뒀다"고 말했다.

국내사업은 신제품 출시 효과가 컸다. 작년 하반기 출시한 면태강, 신라면 더레



드, 뺨부장이 소비자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 전년 대비 국내사업 매출증가분의 절반가량은 신제품 매출이었다.

농심은 올해도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에 힘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미국 제2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바탕으로 미국 텍사스, 캘리포니아 지역과 멕시코 현지 시장점유율 확대에 도전한다.

/ 최민숙 기자

김동연, 대전·충남서 연이틀 특강행보…“기득권정치 금기 깨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답 없다가 총선 앞두고 들고나와…정치판 바꾸고 싶어”

김동연 경기지사는 15일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를 찾아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지사는 강연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한 ‘유쾌한 반란’을 주문하고 ‘주격경제의 금기 깨기’, ‘세습사회의 금기 깨기’, ‘기득권정치의 금기 깨기’ 등 3가지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재차 강조했다.

유쾌한 반란은 김 지사가 2019년 12월 인재 양성과 사회 기여 활동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명으로, 각 분야 기득권에 대한 금기 깨기 차원에서 주창한 개념이다.

김 지사는 특히 기득권정치의 금기 깨기 도를 들고나왔고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앞서 14일 대전 충남대와 충남 공주대를 차례로 방문해 ‘국토균형발전 경기도-충청권 상생 방안’과 ‘경기도



김동연 지사, 호서대 특강

총선 앞두고 여당의 직전 대표가 경기부

간담회와 특강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비전, 정책도 만들었고

100번 가까운 공청회와 토론회를 했고 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그런데도 중앙정부에

서 답이 없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

다”며 “그렇지만 경기도는 차질 없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기득권 승자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치권을 바꾸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며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다. 경기도 도정을 통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믿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정치교체를 위해 판을 바꿔보고 싶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틀째 계속된 김 지사의 충청권 ‘특강 행보’를 놓고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역할론 등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충청도는 김 지사와 부인 정우영 여사의 고향이고 아산 도고중학교는 김 지사 장인이 초대 교장을 해 연고가 있다”며 “지인과 대학 측의 초청으로 강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서울 매력 소개할 2030 서울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 모집

서울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20·30세 대의 감성으로 서울 곳곳의 관광 콘텐츠를 소개할 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 5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발된 트립메이트는 4~11월 8개월간 서울의 대표 축제나 행사를 체험하고 체험형 관광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서울 관광을 소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매력적인 서울 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들에게 활동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 교육, 우수 활동 표창장·수료장 등을 수여한다.

SNS 활동에 능숙한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외래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공감을 얻을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외국인도 포함해

선발할 예정이다.

트립메이트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2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운행사무국(☎ 070-4617-4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재기



점점 커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부산대병원도 ‘600억원 마통’ 만든다 경영난에 직원들 무급휴직

전공의 집단 이탈이 한 달 가까이 이어

지면서 부산지역 대학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500억~6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다음 주 중 만들기로 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하루 5억~6억원 가량 손해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손실액은 100억~1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전공의 87%가 사직한 부산대병원은 지난 8일부터 비상 경영체제 3단계 중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정성운 병원장은 지난 8일 병원 내부 게시판에 ‘부산대병원 임직원께 드리는 글’을 올리고 비상 경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부산지역 대학병원 곳곳에서는 무급휴가도 실시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전날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대상자는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제외한 직원 6천여명이다.

동아대병원도 지난 12일부터 의사들 제외한 전 직원 2천200여명에 대해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 기준 무급휴가 신청자는 120여명이다.

동아대 관계자는 “병영 경영이 어려워진 데다가 환자 수와 수술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무급 휴가를 시행하고 있다”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지난주부터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신청자를 집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이지숙 기자



/ 김희정 기자

KTX 개통 20주년 기념메달 15일부터 사전 예약…29일부터 판매



코레일유통은 오는 15일부터 고속철도(KTX) 개통 20주년 기념메달 구매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순은으로 제작한 KTX 개통 20주년 기념메달 500개를 오는 29일부터 주요 역 상업 시설 7곳에서 한정 판매한다.

판매가는 개당 45만원으로, 스토리웨이 편의점 3곳(용산·부산·의정부)과 중소기업명품마루 4곳(서울·대전·동대구·광주송정)에서 살 수 있다. 구매 희망자는 15일 오전 9시부터 26일까지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29일 이후 매장에 방문해 결제한 뒤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비예약자는 사전 예약 물량 판매 후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매장에서 메달을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유통은 기존에 판매하던 KTX-산천 열차 조립블록도 한정판 제품을 2천개 추가 제작해 29일부터 판매한다.

전국 철도역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한정판 조립블록은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숫자 20을 표현하는 블록 49개가 추가된 제품이다.

/ 최현주 기자

목포시 시내버스 인수 수정안 마련…210억 인수금액 그대로

전남 목포시는 15일 시내버스 운송 사업 인수인계 수정 계약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정계약안은 지난 1월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시의회가 부결함에 따라 목포시가 협상단을 새로 꾸려 마련했다.

시의회는 당시 노선권 인수 감정평가 금액 210억원이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관련 계약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협상단은 법률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해 기존 계약안의 조항별 세부사항과 노선권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적법성, 감정평가 금액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협상단은 기존계약안에 대해 사족이 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확인하고 노선권 평가방법과 금액도 적정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



다.

하지만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조정과 인프라 기부채납 등은 수정계약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금액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지 않고 노선권 매입액을 조정하면 회사 층 배임 및 사해행위 등 법적분쟁이 우려가 제기됐다.

시내버스 운영 인프라 기부채납 제안도 회사 층이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

서 인프라 자산은 이자 총당을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설명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협상단은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그동안 밝혀왔던 사회환원 규모를 구체화하고 시의회 보고와 시민단체 면담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만 수정 계약안을 마련했다.

목포시는 수정 계약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 심사를 거치는 대로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지방재 발행 등의 안제출, 공영제 및 준공영제 추진 등에 나설 계획이다.

협상단 공동단장 김순호 변호사는 “시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시스템 구축에 시의회, 시민단체, 목포시가 긴밀히 협력해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BNK금융그룹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음 세상을 그려가겠습니다!

E 이로운
S 세상을
G 그리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개·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펀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생활구단

제주4·3단체 “4·3 왜곡 국민의힘 후보 공천 철회하라”

제주지역 4·3단체와 정치권이 4·3 왜곡발언을 한 인사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받자 강하게 비판하며 공천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일부 공천자들의 부적절함이 76주기 4·3을 맞는 제주도민들에게 봄날의 햇살이 아닌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다”며 “태영호·조수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4·3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까지 당한 태영호 국회의원을 구로읍에 공천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자인 조수연 후보의 4·3에 대한 왜곡과 편웨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문이 일고 있다”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예정된 지난 2022년 4월 3일 오전 유가족이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조 후보가 제주4·3에 대해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 폭동’이라고 쓴 사실이 알려졌다”며 “과연 이들이 공당의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

지, 이런 후보들을 공천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국민

의힘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의 뜻을 받은다면 지금이라도 태영호·조수연 후보의 공천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해 2월 21일 국민의 힘 전당대회 일정을 위해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제주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한 후 SNS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의 발언을 반복해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수연 후보는 2021년 4월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당시 제주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는가. 아니면 김일성, 박현영 지령을 받고 무장 폭동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었는가.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박민준 기자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경기도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긴급생계비로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받은 경우다.

외국인 피해자도 포함되며 가구당 1차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나 경기도가 지원하는 긴급복지나 긴급 주거 이주비를 이미 받았다

면 긴급생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오는 18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 민원24’(http://24.gg.go.kr)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등기로 신청서를 부천시 주택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족하지만 긴급 생계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강희찬 기자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부터 지원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 4월부터 일부 시행된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으로 신설될 3개 수당 중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4월 1일부터 가장 먼저 지원한다

고 14일 밝혔다.

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지원금 7천200만원 외에도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명목의 2천800만원을 보태 1억원을 지원한다.

4월 한 달간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가운데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신청 대상이다.

오는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출산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임산부는 지역화폐 인천 이음 포인트로 50만원(사용 기간 1년)을 지급받아 택시 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쓸 수 있다. 인천시는 임산부 2만7천500여명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 신재일 기자



전국 20개 의대교수 비대위 “25일부터 대학별 사직서 제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달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20개 대학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학 중 16곳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를 앞두고 이미 사직서 제출 등에 관한 설문을 완료했는데, 이들 대학에서는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을 이달 25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했고, 학교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데 동의했다.

비대위에서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이들이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달 25일은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보건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수령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5일이

지나면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에 앞서 이달 22일에는 다시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대학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수련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이끄는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대병원 측의 회동에도 함께했다.

한 총리는 회동 후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고 서로 좀 더 잘 이해하는 기회를 갖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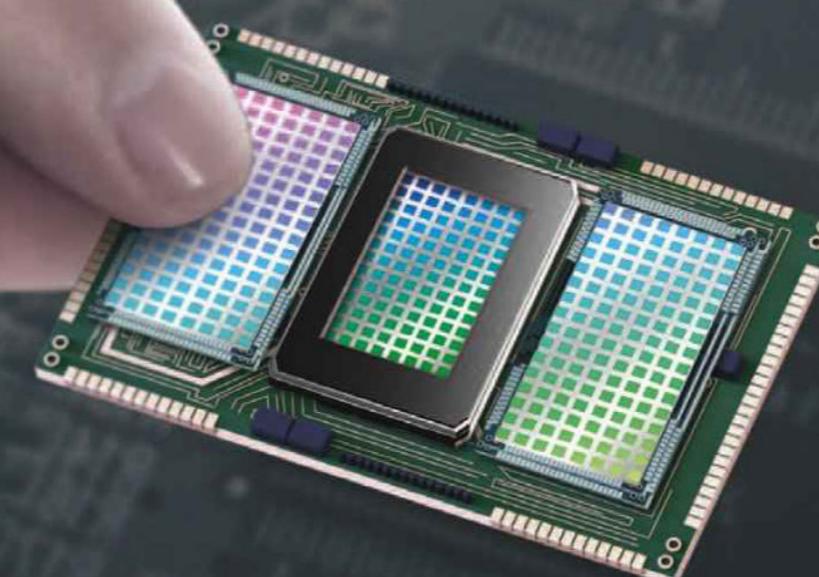
이날 20개 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에 앞서 서울대와 가톨릭대, 울산대 등 3곳은 이미 각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 대학은 이른바 ‘빅5’ 병원에 속하는 병원들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가톨릭대 교수는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진료 축소,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 사직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나머지 ‘빅5’ 병원인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정규진 기자

대한민국 자식재산은 기술경찰이 지킨다!



최근 5년
해외 기술유출 피해액 25조원
해외 기술유출 건수 93건

특허청의 심사관 출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수사관들이 해외 기술유출과
자식재산 침해 관련된 범죄를 직접 수사하여
국민의 자식재산을 보호합니다

자식재산침해 신고상담센터 1666-6464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 연금닥터



손님이 먼저 알아보고 선택해주신 하나은행 연금 더드림 라운지

여의도 | 을지로 | 삼성동 | 부산 | 대구 | 광주

2023
퇴직연금 자산증가
전금융권 1위

2023년,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공시 기준

나만을 위한
특별한 연금플랜을
만나보세요



THE
**DREAM
LOUNGE**
연금 더드림 라운지

연금 더드림 라운지

대상 손님 | 1억원 이상 IRP/DC 자산 보유한 개인손님

예약 방법 | 하나원큐앱 - 메뉴 - 퇴직연금 - 연금닥터 진단 - VIP상담

연금 더드림 라운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 연금 VIP 종합 컨설팅
- 연금자산관리
- 연금 및 은퇴 설계
- 전문가 상담 연계 서비스

하나은행

* 하나연금닥터는 하나금융그룹 퇴직연금 전문 브랜드입니다. * 이 금융상품은 사업자가 적립금 운용 상품을 제작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상품결정권은 기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보호 인도는 귀이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퇴직연금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연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DC/IRP] 계좌의 침입부정증권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의견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당시에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있어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16.5%)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양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최대 한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의 발생여부 등에 따라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https://www.hanabank.com>) 모바일 앱(하나ON)을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고객센터 1599-2080 | 운영시간(영업일 09:00-18: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01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106호(2024.02.06-2025.01.31) 또는 CC브랜드240207-0064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하위권 팀 풀럼FC에 세 골 차로 완패한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팀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토트넘은 1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풀럼과의 2023-2024 EPL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3으로 크게 졌다.

이날 승리했다면 다음 시즌 유럽축구 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이 가능한 4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었으나 예상 밖 패배로 무산됐다.

5위 토트넘은 12위 풀럼을 상대로 슈팅 수에서 14대 16으로 뒤지는 등 전체적으로 밀렸다. 스코어를 봐도 전반에만 2골을 내주는 등 사실상 일방적으로 끌려간 경기였다.

손흥민은 경기 후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모두가 거울을 보면서 ‘내 잘못이야’라고



손흥민

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번 시즌에 보여준 노력을 이 경기에서는 쏟지 못했다”며 “경기력과 자세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손흥민은 팬들을 향한 미안함도 함께

전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건 매우 슬픈 일이다. 팬들에게 이런 경기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풋볼리언데 따르면 앤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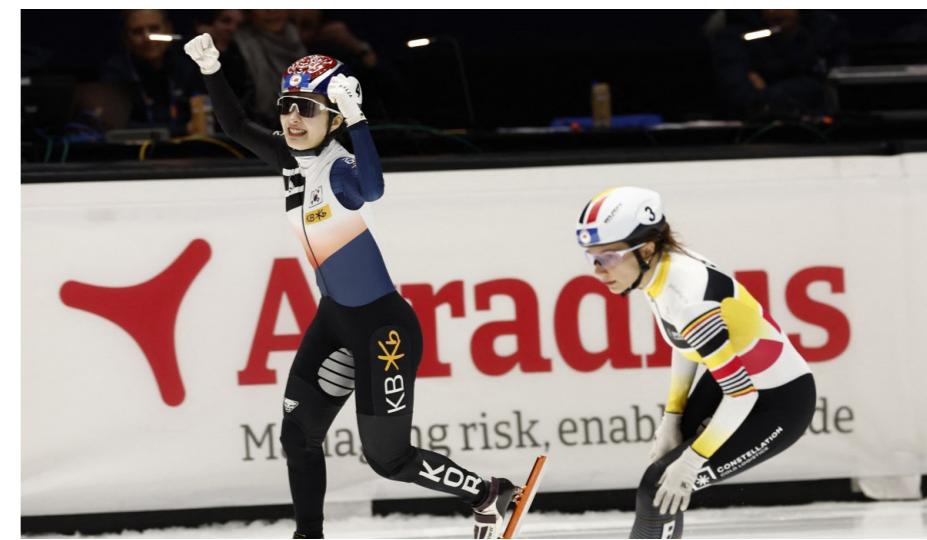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로 2023-2024

시즌을 시작한 토트넘이 리그에서 무득점으로 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득점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돌아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른 경기와 다르지 않다.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하다”며 “고비가 지나갔으니 반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경기력 침체가 일시적이라 본다면 당장 걱정스럽지는 않다고 한다.

그는 “5경기 연속으로 이랬다면 걱정스러웠을 텐데 단지 실망스러울 뿐”이라며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모두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4위 달성을 상 받을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팀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도 진출해봤다”며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도 괜찮다. 팀 자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4위로 시즌을 마치고 싶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 최준용 기자



‘쇼트트랙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

세계선수권 1,500m 금메달

올 시즌 쇼트트랙 여자부 세계랭킹 1위 김길리(성남시청)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길리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 애호니 아레나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1초19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이날 앞서 치른 준결승에서 전제 1위 기록으로 결승에 오른 김길리는 레이스 초반 잠시 후미에서 분위기를 살피다가 이내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 미국의 크리스틴 산토스-그리즈월드, 네덜란드의 하네 데스메트와 치열하게 자리싸움을 했다.

마지막 바퀴 첫 코너에서 레이스를 주도하던 산토스-그리즈월드가 데스메트에 밀려 살짝 빠끗한 틈을 놓치지 않은 김길리는 인코스를 파고들어 단번에 1위로 올라섰고,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해 정상에 섰다.

올 시즌 월드컵 종합 랭킹 1위로 ‘크리스털 글로브’를 수상한 김길리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계주 은메달 1개에 그쳤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이번 대회 목표인 다관왕을 향해 한발짝 다가섰다.

최민정(성남시청)을 이을 후계자로 언급되는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는 경기 뒤 인터뷰에서 “진짜 너무 기쁘고 좋다.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이어서 월드컵과는 또 다른 기분인 것 같다”며 “골인 순간 ‘드디어 해냈다, 1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활짝 웃었다.

김길리는 “3위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뒤에서 기회를 엮봤다”고 레이스를 돌아본 뒤 “제일 큰 목표인 올림픽 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함께 결승에 출전한 심석희(서울시청)는 2분22초509의 기록으로 4위에 올랐다.

여자 대표팀은 김길리, 이소연(스포츠 토토), 박지원(전북도청), 심석희가 나선 여자 3,000m 계주에서 무난하게 결승에 진출했다.

김길리는 여자 1,000m와 여자 3,000m 계주에서 다관왕을 노렸다.

남자 1,500m 결승에서는 우리 선수끼리 충돌로 노메달에 그쳤다.

2년 연속 남자부 월드컵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박지원(서울시청)이 선두로 달리고 있었으나 뒤늦게 추월을 시도한 황대현(강원도청)에게 밀려 중심을 잃고 후미로 쳐졌다.

박지원은 시작부터 선두권을 유지하며 레이스를 이끌었지만 결승선까지 2바퀴를 넘긴 시점 3위로 달리던 황대현이 아웃코스에서 인코스를 파고드는 과정에서 부딪쳐 바깥쪽으로 밀려 났고, 최종 6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황대현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됐고, 금메달은 중국의 쑨룽에게 돌아갔다.

황대현은 지난해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3-2024 ISU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1,000m 2차 레이스에서도 결승선을 반 바퀴 앞두고 1위로 달리던 박지원을 인코스로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그를 밀쳤다.

/ 박병호 기자



PBA 조재호-사파타,

LPBA 김가영-김보미 결승 대진 확정

프로당구 PBA 월드챔피언십 ‘왕좌의 후보’가 남녀부 각각 2명으로 좁혀졌다.

남자부 PBA에서는 ‘디펜딩챔피언’ 조재호(NH농협카드)와 초대 월드챔피언십 우승자 다비드 사파타(스페인·블루원리 조트), 여자부 LPBA에서는 김가영(한국 카드)과 첫 우승에 도전하는 김보미(NH 농협카드)가 결승에 올랐다.

조재호는 1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SK렌터

카 제주특별자치도 PBA-LPBA 챔피언십 2024’ 준결승전에서 에디 레펜스(엘기에·SK렌터카)를 상대로 세트 점수 4-2로 승리했다. 또 다른 준결승전에서는 사파타가 세미 사이그너(튀르키예·에스와이)에게 세트 점수 4-0 완승을 따냈다.

이로써 조재호는 지난해 월드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2년 연속 결승 무대를 밟고 PBA 첫 연속 월드챔피언십 우승에 도전 한다. / 황순길 기자

키움, 다저스와 선물 교환…구단 모자·공인구 40세트 전달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2024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서울시리즈 연습 경기 상대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구단에 구단 모자와 공인구 세트 40세트를 선물했다.

키움 히어로즈는 17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다저스와 연습경기를 앞두고 그라운드에 나와 다저스 데이브 브라운 감독과 선물을 교환한 뒤 기념 활용을 했다.

키움 관계자는 “양 팀은 사전에 간소한

선물을 주고받기로 했고, 경기 전 양 팀 감독이 대표로 선물 교환을 했다”며 “구단은 모자와 공인구 세트 40세트를 다저스 구단에 따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다저스 역시 구단 모자 등을 키움에 선물했다.

이날 양 팀 선수들은 경기 전 그라운드에 도열해 고척돔을 찾은 관중들에게 인사했고 미국 국가, 애국가에 맞춰 국기에 경례했다. 시구는 배우 전종서가 맡았다.

송현준 기자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한전KPS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준열·한소희 열애설 인정…“혜리와 헤어진 뒤 알게 돼”

한소희, 블로그에 직접 글 올려 “환승이라는 단어 배제해달라”

한소희와 류준열이 열애설을 인정했다. 아울러 류준열이 옛 연인 혜리와 헤어진 뒤 한소희와 알게 됐다며 이른바 ‘환승 연애’ 의혹을 부인했다.

한소희는 16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는 사이는 맞지만, 환승이라는 단어는 배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당시는 이미 2024년의 시작이었고, 그분과의 결별은 2023년 초에 마무리됐으며 결별 기사는 11월에 나왔다고 들은 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류준열이나 혜리 등 다른 당사자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맥락상 전날 불거진 열애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준열의 소속사 씨제스 스튜디오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 “류준열이 올해 초부터 한소희와 좋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다”며 “류준열은 결별 후



배우 류준열(왼쪽)과 한소희

한소희를 알게 됐고 최근 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씨제스 스튜디오는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난무해 배우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비방과 모

욕적인 게시물들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과 인권 침해에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

했다.

한소희와 류준열은 두 사람이 하와이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글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열애설이 불거졌다.

같은 날 류준열의 옛 연인 혜리는 SNS에 하와이를 연상케 하는 휴양지 사진과 함께 “재밌네”라는 글을 올리고 류준열에

대한 팔로우를 취소했다.

이어 한소희도 SNS에 “환승연애”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제 인생에는 없다”며 “저도 재미있네요”라고 썼다.

혜리와 한소희가 올린 글을 두고 누리꾼이나 팬들은 류준열이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른바 ‘환승’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랜 연인 사이였던 류준열과 혜리의 결별은 작년 11월 알려졌다.

한소희는 전날 자신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이날 블로그에서 “찌질하고 구차했다”며 “가만히 있으면 됐을 걸 제가 환승했다는 각종 루머와 이야기들이 보기 싫어도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잠시 이성을 잃고 결례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은 그분께도 사과드릴 것이며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 김채원 기자

‘시그널’ 8년 만에 ‘수사반장’ 35년 만에…결국 속편 만든다

성공한 전작에 기대 관심 유발…흥행 이어갈지 주목



제작돼 전작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방송가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 첫 방송을 앞둔 MBC 드라마 ‘수사반장 1958’은 1989년 종영한 ‘수사반장’과 같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10년 이상 앞선 시절의 이야기를 담는다.

최불암 주연의 ‘수사반장’은 1971년 3월 6일부터 18년 동안 880회가 방영됐다. 최고 70%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한국판 수사 드라마의 시초로 꼽힌다.

‘수사반장 1958’은 제목처럼 1958년을 배경으로 ‘수사반장’에서 최불암이 연기했던 박영한 반장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다룬다. ‘모범택시’ 시리즈의 인기를 이끈 배우 이제훈이 청년 박영한을 연기하고, 이동휘가 동료 형사로 출연한다.

오래전 흥행했던 드라마의 속편 내지 같은 주인공을 다루는 작품이 잇달아

종영한 지 8년 만에 속편의 대본이 집필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최근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라 사피엔차 대학에서 열린 K-콘텐츠 관련 행사에서 “김 은희 작가가 ‘시그널’ 시즌2 대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그

널’ 시즌1 각본을 쓴 김은희 작가도 참석 했다. ‘시그널’은 과거와 현재의 형사들이 무전기로 시간을 뛰어넘어 연락을 주고받으며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다룬 작품이다. 시즌1은 이제훈, 김혜수, 조진웅이 주연을 맡았다.

이 작품은 흥미로운 소재와 짜임새 있는 서사, 주연 배우들의 명연기를 바탕으로 13%대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해 케이블 채널 드라마로서는 큰 성공을 거뒀다. 시즌2의 세부 정보나 방영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tvN 드라마 ‘시그널’ 역시 2016년 3월

2004년 MBC 드라마 ‘대장금’에 출연해 사랑받았던 이영애는 10년 만에 다시 의녀 장금으로 분장한다.

제작사 판타지오는 올해 10월 ‘의녀 대장금’(기제)의 첫 촬영을 시작하기로 하고 이영애를 캐스팅했으며 드라마 작가와 계약을 맺쳤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에 드라마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금’은 조선시대 의녀로 기록된 인물 장금(이영애 분)을 주인공으로 세워 가상의 이야기를 엮은 작품이다. 최고 시청률은 57.8%에 달했다.

‘의녀 대장금’은 ‘대장금’과 동일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같은 배우가 출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작가와 제작사가 다르고 저작권 등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속편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대장금’의 극본을 쓴 김영현 작가의 소속사인 KPI는 ‘의녀 대장금’이 김 작가와 무관하며 ‘대장금’과는 별개의 작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판타지오도 이런 구분을 인정하고 있다.

/ 흥영준 기자

드라마 ‘수사반장 1958’과 ‘시그널’ 시즌1

35년 만에 프리퀄(시간상 앞선 이야기를 다룬 속편)이 제작되는 ‘수사반장’, 8년 만에 시즌2 대본이 집필 중이라고 발표된 ‘시그널’.

오래전 흥행했던 드라마의 속편 내지 같은 주인공을 다루는 작품이 잇달아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기 행동(혐의)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피해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2022년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원룸에서 침대에 앉으라면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말, 산책로에서 안아보며 껴안은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정에서는 ‘당시 작업하던 작품에 해가 될까 봐 피해자를 달래려고 사과한 것’이라며 상황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안은 것은 아께서 보듬어 주려는 심정에서, 딸 같아서 그랬다 / 이지훈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posco
INTERNATIONAL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LNG사업 밸류체인 완성·



With POSCO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우리 소상공인, 더 날개 돋칠 힘

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

우리 자영업자,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리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